

음운론과 영어발음교육

金 鍾 勳*

목 차

- I. 서 론
- II. 음운이론과 발음교육
 - 2.1 음운론의 연구관점
 - 2.2 발음교육에의 적용
- III.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발음교육
 - 3.1 전통적 발음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 3.2 의사소통능력과 발음교육
 - 3.3 발음지도의 새로운 모형
- IV. 결 론

I. 서 론

과거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영어의 발음을 지도할 때 주로 분절음, 즉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단어속에 나타난 개별 분절음의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최소대립(minimal pair)을 이루는 두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특징 및 조음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면서 교사의 발음을 따라 말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이처럼 자음과 모음의 발성법을 중심으로 단어들의 발음지도를 한 결과, 학습자들은 단어의 부분적인 발음에는 어느정도 익숙하게 되었으나, 단어보다 더 큰 구나 절, 문장들의 전체적인 발음에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여, 때로 간단한 영어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시 말해 문장의 강세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리듬이라든가 억양을 등한시 하고 분절음 위주로 영어발음을 교육함으로써, 발음은 물론 발음후의 의미전달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노출되어 왔다.

영어를 발성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다에 있다고 할 때, 발음교육은 종전의 분절음 위주로 자음과 모음의 특징과 발성법을 지도하는데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초분절음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해 영어의 발음 지도는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강세와 연접, 리듬과 억양등의 초분절 자질을 혼련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의 특징이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로서 강한 음절과 약한 음절이 서로 번갈아 나타남으로써 문장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세와 음절은 물론 강세받는 음절에 기반을 두어 정의되는 음보등의 단위가 발음교육에서 중요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음운론의 전개과정과 밀접히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종래의 구조주의 음운론(structural phonology)에서는 음소(phoneme)를 음운기술의 단위로 삼은 반면, 표준생성음운론(standard generative phonology)에서는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s)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형태소(morpheme)를 음운단위로 취급하여 음운계층(phonological level)에 음운규칙을 적용시켜 음성계층(phonetic level)을 유도하는 데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의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절(syllable)과 강세(stress), 성조(tone)와 억양(intonation) 등의 초분절단위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음절음운론(syllabic phonology), 운율음운론(metrical phonology 또는 prosodic phonology),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 등이 바로 초분절 단위의 음운적 특성과 음성적 관계를 포착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음운론의 이와 같은 흐름이 영어발음교육을 위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음지도를 해야 바람직한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음운이론이 영어발음 교육에의 적용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발음교육의 모형은 어떻게 설정해야 좋은지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음운론의 중요한 원리나 개념들이 어떻게 영어발음교육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전통적인 발음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발음교육의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음운이론과 발음교육

2.1 음운론의 연구관점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음운론에 대해 그 흐름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이되며 지각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음성학(phonetics)이라면, 음운론(phonology)은 음의 체제나 유형에 대한 연구로서 음이 언어체제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조직화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음성학이 소리의 구체적 물리적 측면을 다루

는데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음운론은 소리의 추상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국어 화자의 머리속에 내재하는 음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음성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나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분야이다.

이러한 과제를 밝히는 음운론은 크게 전통적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음운론으로 구분되나 생성음운론은 다시 초기 생성음운론인 표준생성음운론과 그 후의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generative phonology) 및 후기 생성음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후기 생성음운론은 최근의 음운론으로서 음절음운론, 운율음운론, 자립분절음운론,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을 내포하고 있다.

구조주의 음운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Bloomfield(1933), Hockett(1942), Pike(1947), Gleason(1961)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론이며, 다른 하나는 Trubetzkoy(1939)로 대표되는 프라그학과 음운론이 그것이다.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론은 물리적 실재나 음성적 실재를 지닌 음소를 발견하는데 음운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Gleason(1961)에 의하면 음성적으로 비슷하게 발음되고 일정하게 분포되는 음의 부류(a class of sounds)를 음소로 본다.¹⁾ 예를 들어 환경이나 분포가 다른 pin, spin, top 등의 p음은 각각 [p^h], [p'], [p⁻]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음성상의 단위나 변이음들을 하나의 대표로 나타낸 것이 음소인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론자들은 그들 변이음들이 어떤 종류의 음소에 할당될 수 있는지를 몇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왔다. 이른바, 최소대립(minimal pairs),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 자유변이(free variation) 등은 그들이 음소를 발견하는 절차로 삼은 원리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론은 위 원리에 기반을 두어 음성상에 나타나는 변이음들이 어떤 음소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음소를 발견하는 이러한 절차들은 때로는 그 용이함과 엄밀함으로 음운분석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그 절차들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생성음운론의 전개로 그 음소계층마저 부인당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한편 Trubetzkoy(1939)가 대표하는 프라그 학파에서는 음소를 음운체계내의 대립(oppositions)에 기초하여 기능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음성적 변이형과 관련하여 음소를 다루는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라그학파에서는 음운분석을 할 때 음운중복(phonemic overlapping)과 중화(neutralization)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음소를 음운적 실재를 지닌 추상적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구조주의 음운론은 음운분석을 함에 있어 모국어 화자의 심리나 정신은 배제하고 음성상의 분포나 음운상의 대립에 기반을 두어 물리적이거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음소를 파악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원리가 모국어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객

1) H. A. Jr. Gleason. 1961.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261.

관적으로 관찰가능한 것만을 기술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적 측면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Chomsky & Halle(1968)로 대표되는 표준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분석을 하면서 모국어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인상 등 심리적 측면을 증시함으로써 구조주의 음운론과는 전혀 다른 음운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들이 집대성한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이하 SPE라 약함)의 주요한 관심사는 모국어화자의 머리속에 내재하는 추상적인 계층으로서 음운표시계층(phonological representations)을 설정하고 여기에 첨가, 탈락, 전환 등의 여러 음운규칙을 적용시켜 음성표시계층(phonetic representations)을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표준생성음운론의 임무는 음운계층인 기저형을 음성계층인 표면형과 관련시키되 그 중간에서 음운규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ing이란 단어의 기저형을 /sing/으로 잡고 여기에 /n/이 /ŋ/으로 변하는 규칙과 /ŋ/이 탈락하는 규칙을 적용시켜 표면형 [sɪŋ]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표준생성음운론에서 한동안 기저형의 추상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추상파와 구체파, 그리고 중도파의 논쟁이 있어 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음운표시계층에 해당하는 기저형표시는 기본적으로 분절음과 경계표시가 일선적으로 나열되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분절음의 경우는 사실 자음과 모음이 연속되어 있다가 보다는 변별적 자질의 다발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표준생성음운론은 분절음과 경계기호의 단선적 배열로 이루어진 단위를 취급하는 단선음운론(linear phonology)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의 자연생성음운론도 같은 성격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성음운론은 음운단위들이 단선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고 보지않고 복선적(non-linear phonology) 또는 계층적(hierarchical) 조직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후기의 생성음운론은 분절음 보다 더 큰 음운단위의 음운표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계층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는 복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절과 음보(foot) 및 단어(phonological word) 등의 초분절 단위나 강세와 성조 등의 초분절 요소가 음운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계층화 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선 표준생성음운론에서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음절이 오늘날의 음운기술에서는 중요한 음운단위로 인식되면서 음운론의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절음 위주로 음운기술을 시도한 표준생성음운론과는 달리, 음절을 음운기술의 단위로 채택해야 해당 언어의 분절음 배열제약을 가장 일반적이며 설명력 있게 언급할 수 있으며, 음절이 음운규칙의 환경속에 도입되어야 분절음운론의 여러 음운현상을 간결히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 강세와 성조 등 초분절음운현상을 타당하게 다루기 위해서도 분절음보다는 더 큰 음절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영어 단어 중 *bmit은 허용되지 않지만 submit은 허용가능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가? 그것은 /bm/의 결합은 영어에서는 음절초에 올 수 없기 때문이며, submit의 경우는 /b/

와 /m/사이에 음절경계가 생김으로써 /b/와 /m/은 각각 첫째 음절의 끝과 둘째 음절의 시작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의 분절음 배열제약을 거론할 때는 음절구조에 대한 언급을 해야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영어의 기식음화(aspiration) 현상과 설탄음화(flap) 현상을 간결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의 환경속에 음절이 내포되어야 하며, 영어의 강세배당과 음절이란 단위에 의존하여 기술할 때 표준생성음운론에서 보다는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음절의 내부구조는 이전처럼 $C_0^3 V C_0^4$ 의 구조와 같이 단선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 구성요소로 취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영어의 음절구조는 음절전부(onset)와 음절각운(rhyme)으로 양분되고, 다시 음절각운은 음절핵(nucleus)과 음절후부(coda)로 나누어지는 계층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²⁾ 물론 이때 음절의 구조가 양분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평면적(flat)이어야 하느냐는 논자마다 다르나 음절의 구조가 분절음의 계층적 배합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鍾勳(1989, 1990)에서 수행된 바가 있다.

한편 계층적 음절구조의 하위 구성요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도 음절음운론에서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McCarthy(1970), Halle & Vergnaud(1980), Clements & Keyser(1983) 등은 음절수형의 말미위치를 막연히 C와 V로 나타내고 있으며, Selkirk(1982)은 말미 위치를 [\pm syllabic], [\pm sonorant]의 복합체로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Kiparsky(1979)는 말미 위치를 S와 W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金鍾勳(198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절구조의 하위구성요소에 올 수 있는 분절음들을 공명도 등급(sorority scale)과 관련하여 특징화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어의 음절구조의 마지막 위치에 올 수 있는 분절음들은 공명도 등급으로 나타낼 경우 보다 일반적이며 간결한 음절구조 조건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음절의 구성요소에 공명도 등급을 관련시켜 onset template conditions, nucleus template conditions, coda template conditions을 세우면 간결한 음절구조와 음절화원리(syllabification)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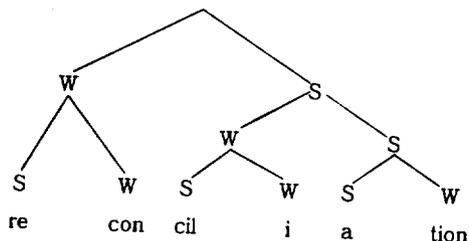
음절화와 재음절화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도 음절음운론의 주요한 논제가 됨은 Nespor & Vogel(1986)의 지적³⁾에 잘 나타나 있다. 음절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하나는 필자(1989)나 Selkirk(1978), Halle & Vergnaud(1978), Itô(1976) 처럼 적형적인 음절틀(syllable template)과 그 음절구조에 따른 조건을 설정하는 template-approach가 그것이며, 다른 하나는 Kahn(1976), Steriade(1982), Levin(1985) 등이 주장하고 있듯이, 음절전부규칙(onset rule)과 음절각운규칙(rime rule)을 설정함으로써 음절을 형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은 더 많은 부가적인 규칙이 문법에 주어질 경우 보다 복잡한 형태의 음절유형이 생성

2) 이러한 관점은 가장 최근의 Fowler *et al* (1993)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3) N. Nespor &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Holland : Foris Publications. pp.61-62.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간결치 못하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더우기 재음절화의 과정은, 金鍾勳(1990)에서 다루듯이, 기저구조의 음절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생과정에서 기본 음절구조에 맞지 않는 비적형적인 구조가 생길 경우 그것을 없애고 기본 음절구조에 맞도록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음절화 원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으로 복선음운론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로는 강세를 다루는 운율음운론(metrical phonology)을 들 수 있다. SPE에서는 다른 모든 음운자질은 양분적으로 취급하면서 유독 강세에 대해서만은 다원자질로 취급하는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강세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변형순환의 원리에 따라 여러 규칙이 주기적으로 반복 적용됨으로써 모음에 부여되는 것으로 보지만, 운율음운론에서는 운율구조상 나란히 놓이는 구성요소의 상대적 탁립관계(relative prominence)인 강(strong)과 약(weak)의 양분체제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reconciliation이란 단어의 강세 패턴은 다음과 같은 양분적 운율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운율수형에서 S란 교점이 뜻하는 바는 W라는 교점과 비교하여 더 강하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W라는 교점은 S란 교점보다 더 약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S와 W는 항상 관련되어 나타나야지, S만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W만 홀로 나타나서는 안되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SS나 WW와 같은 구조를 비롯하여 양분적이지 못한 SWW와 WSW 같은 구조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이 수형에서 주장세는 S의 교점만을 쭉 타고 내려온 -a에 주어지며 약 강세는 S와 W의 교점을 혼유하는 부분에 할당되고 있다. 각 구성요소내에서 S라고 하는 교점만을 타고 내려온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공명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Lieberman & Prince(1977)에 의해 소개된 이같은 강세의 운율적 접근은 Kiparsky(1979), Selkirk(1980), Hayes(1981, 1982, 1984, 1991) 등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보와 단어 등도 중요한 음운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음보는 음성적으로는 강세받는 음절의 onset에서 시작하여 다음 강세받는 음절의 onset 바로 직전까지 걸치는 단위⁴⁾로서 강세받는 음절의 수만 같

4) Junko Itô.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pp.3-7.

5) 金鍾勳. 1992. "英語單語의 音節化 原理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5권. 한국영어영문학회 제주지회. pp.287-304.

6) Heinz J. Giegerich. 1992. *English Phon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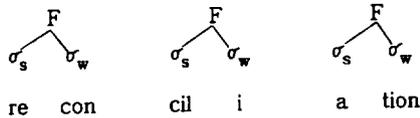
다면 발음간격도 같다는 이른바 등시간격성(isochrony)에 의해 특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음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세 음절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비강세 음절은 강세 음절 다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하나나 그 이상 따라 와도 상관없다. 게다가 단어는 음보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음운단위로서 영어의 단어 강세를 설명할 때 맨 마지막 주 강세가 정해지는 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reconciliation이란 단어의 수형을 음절계층에서 음보계층 그리고 단어계층까지 표시해보기로 하자. 먼저 음절계층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σ_s σ_w σ_s σ_w σ_s σ_w
 re con cil i a 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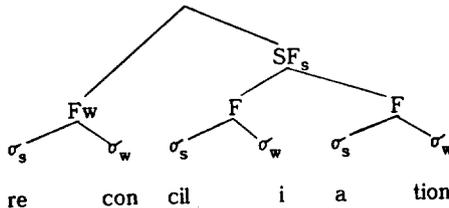
위 도표에서 σ_s 는 강세 음절을, σ_w 는 비강세 음절을 나타낸다. 강세가 종래의 SPE에서 처럼 숫자 표시에 의해 다원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강약의 양분체제로 인식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어서 음절보다 상위에 놓이는 음보단위(F)까지 수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강세 음절이 음보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위 수형은 하나의 강세음절 뒤에 하나의 비강세 음절이 따라 음으로써 세개의 음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음보형태는 FFF가 나란히 놓이는 삼분적(ternary) 구조를 보이는 바, 양분적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편의상 오른쪽 두 음보를 하나의 단위(이를 superfeet이라 부름)로 취급한다면 위 음보의 수형은 다음의 양분적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지면을 줄이기 위해 편의상 단어계층까지 동시에 나타내면 아래의 수형과 같다.



그런데 영어의 강세를 다루면서 이용하는 운율수형(metrical tree)은 최근에 운율격자(metrical grid)로 다시 수정되어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 예컨대 위 수형은 다음과 같이 격자를 이용하여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x	단어제층
x		x		x	음보제층
x	x	x	x	x	x 음보제층
re	con	cil	i	a	tion	

이 격자표시는 영어 강세의 중요한 특성인 강과 약이 교체되는 현상을 비롯하여 운율수형으로 복잡하게 설명되는 강세특성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gg & McCully(1987)는 운율격자를 이용할 때 강세에 관한 정보를 새로운 방식(new way)으로 신기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주요한 리듬규칙 thirteen men rule 을 운율격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제 3계층
		x	x	제 2계층
	x	x	x	제 1계층
thir	teen	men			

위 수형에서 제 2계층의 두 격자는 그들 사이에 끼어든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접(adjacent)해 있다. 더우기 그 아래 있는 제 1계층의 대응요소들은 인접하기 때문에 충돌(clashing)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세를 이동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규칙이 바로 리듬규칙이다. 이 리듬규칙은 WSS의 요소를 SWS의 요소로 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듬규칙이 적용된 후의 수형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x	제 3계층
	x		x	제 2계층
	x	x	x	제 1계층
thir	teen	men			

이 처럼 강세가 전이되는 리듬규칙은 충돌을 일으키는 강세를 완화시켜서 교체강세(alternating stress)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복선음운론에는 이밖에 분절음층(segmental tier)과 성초층(tonal tier)의 연결관계를 다루는 자립분절음운론이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있으나, 영어의 발음지도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또한 음운론과 형태론의 상호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형태적 규칙과 음운규칙을 분리시켜 표준생성음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어휘음운론, 변별적 자질의 조직을 제층적으로 취급하는 underspecification이론도 음운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음절음운론과 운율음운론 만큼 발음교육에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7) Hogg, H. & C. B. McCully. 1987. *Mertical Phonology : A Courseboo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30.

2.2 발음교육에의 적용

지금까지 요약한 음운이론을 기초로 여기서는 영어음운론의 중요한 원리나 개념이 어떻게 영어발음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음소와 변이음의 개념은 발음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음을 하나의 대표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발음교육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즉, p라는 음은 그것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 그것을 각각 [p^h], [p'], [p^ɹ]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준생성음운론의 규칙표기를 이용하여 ①p→[p^h]/#— ②p→[p']/s— ③p→[p^ɹ]/—#로 표시하고, 발음지도를 할 때는 숨소리를 동반시켜 [p^h]를 발음시키고, 우리말의 쌍비음에 가깝도록 [p']를 발음시키며, 끝이 개방되지 않도록 [p^ɹ]를 조음하도록 하면 된다.

게다가 음운현상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표준생성음운론의 규칙표기는 영어의 여러 음운 과정을 가르치는데 이용할 경우 간편할 것으로 본다. 영어의 동화작용(assimilation)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news의 /z/라는 음은 newspaper에서는 뒤에 오는 /p/음과 동화되어 [s]로 발음되는데 이를 /z/→[s]/—p라는 간단한 규칙으로 가르치면 명확해진다. 물론 이때 [z]와 [s]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은 철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습득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후기생성음운론 중에서 음절음운론의 개념이 어떻게 영어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영어의 음성상에 나타나는 단어의 음절구조는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자음이 최대 세개까지 올 수 있으며, 그 뒤에는 자음이 네개까지 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절핵 앞에 음절전부(onset)로서 자음이 최대 세개, 음절후부(coda)로서 자음이 최대 네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음절핵(nucleus)에는 공명도(sonority)가 큰 음이 위치하며, 그 전후에는 공명도가 점차 낮아지는 음이 자리함으로써 영어의 단어가 형성된다.

더우기 영어단어는 음절전부와 음절핵이 하나의 단위가 되기 보다는 음절핵과 음절후부가 하나의 밀접한 단위를 이루므로 음절핵에 단모음이 위치하면 반드시 음절후부에는 자음이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 단어의 발음을 지도할 때 음절전부와 음절각운 등을 구분하여 지도해야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baa, bay, bee 등의 발음을 가르칠 때는 처음에는 음절을 분리시켜 혼련하고(broken syllable drill), 나중에는 음절을 결합시켜 혼련하는(putting syllables together-drill) 과정을 거치되, 첫 단계에는 음절전부와 음절각운을 별도로 분리시켜 b-ah, b-ay, b-ee 등으로 발음을 지도해야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음절이론의 내용중에서 발음교육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은 음절화 원리, 즉 영어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어떠한 원리에 따라 어떻게 음절단위로 나누어 지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음절구분의 중요성은 鄭國(1988)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⁸⁾, 발음교육에서 분절음지도보다 더욱

8) 鄭國, 1988. "음운론의 제 이론과 외국어 발음교육." 영어영문학 제34권 제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p. 389.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Christmas란 단어가 2음절로 구분된다는 것을 모르고 불필요한 모음 ÷ (으)를 삽입하여 [k÷ris÷mas÷]로 발음하면 아무리 분절음의 발음이 잘 되어도 음절을 제대로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발음교육에서 이해해야 할 영어 단어의 음절화 원리는 金鍾勳(1992)이 다룬바와 같이⁹⁾, 전통적 음절화 원리와 음운적 음절화 원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철자상의 분절원리와 음성상의 분절원리를 포함하며, 후자는 모음간 경계원리, 분절음배열원리, 음절전부최대원리, 양음절성의 원리로 구분된다. 철자상의 분절원리는 네가지로서 첫째,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 다음이나 접미사 앞에서 음절을 구분하며, 둘째, 어떤 단어의 모음이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면 그 다음에서 음절을 구분하고 또 단모음이면 그 다음 자음을 선행하는 단모음과 음절을 구분하며, 셋째, 모음간에 자음이 연속할 경우 그 중간에서 음절을 가르고, 넷째, 모음이 들 연속할 때 그들이 단모음과 전이음의 결합이 아닌한 그 사이에서 음절을 구분하는 원칙이다. 음성상의 분절원리는 세가지로서, 첫째, 강세를 받는 단모음을 그 다음의 자음과 동일한 음절에 속하도록 하며, 둘째,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올 때는 바로 다음에서 음절을 구분하고, 셋째, 강세를 받지 않는 단모음은 뒤 따르는 자음 앞에서 음절을 나누는 원칙이다. 음운상의 음절화 원리는 네가지로, 첫째, 영어단어에 두 모음이 연속해서 나올 때 두 모음사이에서 음절화하며, 둘째, 두 모음 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오고 두번째 모음이 강세모음이면 그 자음은 두번째 음절의 일부가 되도록 음절화하며, 두개의 모음사이에 자음군이 올 때에는 그 자음군이 영어에 어두에 허용가능하고 그 다음의 모음이 강세를 받을 때, 자음군은 강세받는 모음과 동일한 음절에 속하도록 하며, 셋째, 분절음배열 제약상 허용가능한데 까지 최대한의 자음군을 음절전부에 오도록 하며, 넷째, 첫음절이 강세를 받는 상황에서 두 모음 사이에 오는 자음은 첫음절과 둘째 음절에 다 속하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특히, 음절음운론에서 거론되는 강세음절과 비강세음절의 개념은 운율음운론의 음보단위와 결합되어 발음지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영어는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가 서로 번갈아 나타남으로써 고유한 리듬을 형성한다.¹⁰⁾ 영어는 전체 리듬에서 강한 요소끼리의 인접을 피하는가 하면, 약한 요소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thirteen men은 원래의 운율구조인 WSS로 발음되지 않고 SWS로 강세가 전환되어 발음된다. 또한 my wed wife나 a fun story는 약강강의 구조를 보임으로써 강한 요소가 인접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바, my wedded wife나 a funny story가 되어 약강약강의 올바른 리듬을 형성하게 된다. ladies and gentlemen, son and daughter, men and women이 각각 gentlemen and ladies, daughter and son, women and men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음보내에서 균형잡힌

9) 金鍾勳. 1992. "英語單語의 音節化 原理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5권. 한국영어영문학회 제주지회. pp. 287-304.

10) 이러한 입장은 Quirk et al (1985 : 971)에 의해 리듬규칙성 원리(principle of rhythmic regularity)로 표현되고 있다.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이다.¹¹⁾

따라서 올바른 발음지도를 위해서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이 번갈아 나타나는 영어리듬의 특성을 인식하여 첫 강세 음절과 다음 강세 음절간의 길이를, 그 중간의 비강세 음절의 수와는 관계없이, 꼭 같이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비록 개별 음절의 수는 달라도 강세 음절의 관건이 되는 음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길이로 발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란 문장은 동일한 발음시간을 갖는 This is the/house that/Jack/built의 네 음보로 발음해야 한다. 다시말해 음절의 수만을 따지면 This is the는 3음절이요, house that은 2음절이고, Jack와 built는 각각 1음절이지만, 음보를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음절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강세 음절은 강하고 또렷하게 발음되어야 하며, 비강세 음절은 약화되어 [ə]로 발음하거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Prator & Pobinett(1988)도 좋은 영어의 리듬을 습득하는데는 강세 음절은 적절히 강조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강세 음절은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¹²⁾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영어 리듬발음지도 방법은 음악의 리듬지도를 이용하여 강세 음절은 '따안'이라 하거나 두번의 손뼉을 치며, 비강 세음절은 '땀'이라 하거나 한번의 손뼉을 치는 일을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지도는 문장의 억양을 제대로 내기 위한 수순이 되지만, 문장속의 강세에 초점을 두어 발음해도 훌륭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영어의 억양은 일반적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강조점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남을 인식해야 한다.

Ⅲ.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발음교육

3.1 전통적 발음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영어교육현장에서는 전술한 바 대로 음운이론을 발음교육에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주로 구조주의 언어학의 하나의 방법론인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이론에 입각하여 발음지도를 해 왔다.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체계의 비교를 통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학습상의 문제점을 예측함으로써 발음지도에 임해 왔다. Fries(1945)와 Lado(1957) 등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채택한 이 방법론을 한국어와 영어에 적용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체계에서 서로 비슷한 음은 학습자가 대치해서 발음하며, 영어의 음운체계에만 존재하고 한국어에는

11) 여기서 men and women을 men and/ women으로 발음하지 않고 women and/ men으로 발음하면 강약/강약의 구조가 강약약/강의 구조가 됨으로써 부자연스러운 리듬을 이룬다는 뜻이다.

12) Clifford H. Prator, Jr & B. W.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p.30-31.

없는 음은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줌으로써 학습상의 문제가 되는 바, 교사로서 이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1960년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한국의 언어학에서는 음운분야에 관한 한, 영·음운조직에 관한 대조연구가 주류를 이룬 바 있다. 이 대조분석 이론은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발음상 어떤 문제점을 보이게 되는지에 관해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학습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음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점이 무엇이 될지를 예측하는 학습자료로만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 나타난 오류분석(error analysis)은 이러한 대조분석의 한계를 극복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자들이 발음부분에서 어떤 잘못을 보이는데 대해 교사가 직접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비교적 진전된 발음지도 방법으로 인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현장에서 문제된 발음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주도 단어에 나타난 발음만을 중시하여 최소대립이 되는 두 단어의 발음만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체문장의 발음 지도는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소대립은 단어의 범주를 넘어 구와 문장의 범위로 확대될 수 있으나 과거의 발음지도는 이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최소대립을 이루는 문장의 발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발음을 했는지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소대립을 이루는 다음 두 문장은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을 Call a doctor! 로 할 것인지, Call a waiter! 로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There's something in my eyes!

There's something in my ice!

위 두 문장에서 eyes의 모음이 ice의 모음보다 길게 발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성음 앞의 모음의 발음이 무성음 앞의 모음의 발음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이나,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 문장 전체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음지도는 개별 단어의 최소대립이 되는 두 음을 지도하는 과정을 넘어 문장속에서 최소대립이 되는 단어의 발음지도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앞서 논한 강세나 리듬, 억양 등을 바탕으로 간단한 전체 대화속에서 발음을 지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며 발음지도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발음이란, 학습자가 한번 잘못 배우게 되면 나중에 교정하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영어학습 초기부터 올바른 발음지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필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관찰한 두 학습자의 영어습득 과정을 고려할 때 더욱 뒷받침된다.

A와 B 두 학습자는 이전에 결코 영어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이다. A라는 학습자는 미

국 국민학교 3학년에 B라는 학습자는 같은 학교 pre-k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두 학습자의 동료들은 물론 그 국민학교 어떤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없는 환경이다. 바꿔 말해 두 학습자는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학습을 하게 되었다.

A 학습자는 학교에서 영어철자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영어 철차만을 따로 암기시키는 우리와는 달리 철자와 발음을 동시에 습득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에이(a), 에이(a)를 계속 발음하다가 철자가 a가 포함된 단어인 aligator를 이어서 발음하게 함으로써 철자와 발음을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철자 b부터 z까지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발음지도를 받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철자를 완전히 습득한 후, A 학습자의 교사는 발음과 철자 익히기에 관한 숙제부터 시작하여 단어 철자쓰기와 문장읽기 등 많은 부분을 가정학습에 일임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의 문화적인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과 아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 학습자의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발음부분에 관한한, 나이가 어릴 때 모국어 회화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 말함으로써 발음을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 학습자가 숙제를 하다가 물어오는 경우에는 영어 사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긴 문장을 읽거나 어려운 단어를 쓸 때에는 A 학습자로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물론 집에서 행한 모든 숙제는 학교에서 교사가 다시 자세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 결과 필자가 A 학습자의 발음에 대해 느끼는 인상은 그 동료들의 발음과 상당히 비슷했으나, 나이가 더 어린 B 학습자의 발음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부자연스런 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B 학습자의 경우는 전혀 철자를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노래나 그림, 그리고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생생한 학습이 이루어 졌으므로, 교사의 발음이나 녹음기의 노래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B 학습자의 경우는 교사가 별도로 숙제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필자가 학교에서 배운것을 이야기 해보라고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는 영어를 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 두 학습자의 영어습득과정이 발음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적어도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리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에서는 나이 어린 학습자가 나이 많은 학습자보다 발음이 더 자연스럽다. 둘째, 전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로 부터 발음을 습득한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더 모국인에 가깝다.

따라서 교육환경이 이 두 학습자와는 다른 우리의 현장에서 영어발음을 지도할 때에는, 중학교 첫 영어시간부터 철자와 음을 동시에 지도하여, 나중에 단어만 보고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영어학습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하면 rhyme이나 노래 등을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교사로서는 영미인의 목소리가 담긴 영어교재의 녹음테이프를 부단히 들어 발음훈련을 해야 하며, 때로 발음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육성대신 녹음테이프를 들려주며 따라 말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때 교사는 영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에 대한 발음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Excuse me, OK, Thank you, You're welcome, How are you doing? 등의 발음은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발음과 어느 정도 같은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들 필요가 있다.

3.2 의사소통능력과 발음교육

제 2장에서 이미 영어음운론의 흐름이 영어발음지도를 위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적한 바 있다. 영어의 발음교육은 과거처럼 분절음 위주로만 실시되어서는 곤란하며 최근의 음운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초분절음에 기반을 두거 실시되어야 영어학습자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 사실 이같은 입장은 최근의 영어교육이론에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강조하는 이론과 일맥 상통한다. 이제 잠시 의사소통능력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음지도를 해야하는지를 지적하기로 하겠다.

의사소통능력이란 한마디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에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나 하는 능력을 말한다.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영미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환경에 맞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Chomsky (1965)가 언급한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을 넘어 사회언어학적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포함하며,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까지도 내포한다.

이 같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중심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을 주장한 학자들은 여러가지 학습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Littlewood (1983)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두 단계의 활동, 즉 의사소통전단계활동(pre-communicative activities)과 의사소통단계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의사소통전단계의 활동은 주로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이해활동으로, 언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인지활동이며, 의사소통단계의 활동은 언어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활동으로서 언어표현의 기능적, 사회적 의미를 아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Littlewood (1983)의 관점을 발음부분과 관련시켜 이야기하면 발음이란 원래 언어형식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훈련은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전단계의 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더 세분할 경우 분절음에 대한 지도는 의사소통전단계의 활동이며, 초

13) W. Littlewood. 1983.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6.

분절음에 대한 지도는 의사소통단계의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분절음에 대한 발음을 통해서 보다는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이 문장의 의미를 전하는데 크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절음에 대한 발음지도보다는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특히, 우리의 학습현장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rhyme이나 노래, 게임을 중심으로 철자습득시 발음을 동시에 습득하는 훈련을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문장의 최소대립에 나타난 단어의 음을 습득시킨 후, 질문과 대답이 중심이 된 대화를 이용하여 발음지도를 한다면, 발음습득은 물론 의사소통능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¹⁵⁾ 물론 이 지도과정에서 초분절음에 대한 지도가 중시되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3.3 발음지도의 새로운 모형

이제까지 논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음지도를 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까지 신장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 1단계는 주로 중학교 과정에서 지도하는 절차이며, 제 2단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도하는 내용이다. 영어자음 /b/음을 지도하는 과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 1단계의 지도

교사 : (단추달린 옷을 입고 들어와 준비한 단추를 나누어 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re are buttons for you.

There are buttons for me.

There are buttons for everyone.

For everyone, you see.

(학생들에게 한번에 한 문장씩 따라 말하도록 하고 다시 교사가 위 문장을 전체적으로 말해준다.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한 문장씩 따라 하도록 한후 전 그룹이 모든 문장을 말할 때까지 계속한다.)

교사 :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단추를 가리키며)

Here's a button. Here's another button. One, two, three, four buttons. I have four buttons. Chulsoo, how many buttons do you have?

학생 : I have two buttons.

교사 : 한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이 몇개의 단추를 갖고 있는지 묻도록 한다.

학생 : 서로 교대로 질문과 대답을 한다.

교사 : button의 /b/음을 연습시킨다. 그 방법은 앞에서 거론한 분리된 음절훈련과 결합된 음절

14) Trammel(1993 : 198)에 따르면 발음교육에 관한 이같은 견해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영어교육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5) 이에 대해서는 발음지도에 대한 Rivers (1981 : 125-150)의 견해를 참조할 것.

훈련을 이용하여 /b/음과 button을 동시에 말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때 강세와 리듬 및 억양 등 초분절 자질에 대한 훈련도 함께 한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is is a big (little, medium-size) button.

Minhee, what size button do you have?

학생 : I have a big button.

교사 : Sungho에게 다른 학생이 어떤 크기의 단추를 갖고 있는지 묻도록 한다.

학생 : 모든 학생들이 질문 대답하고 단추들을 교사에게 돌려 준다.

교사 : /b/음이 들어있는 다른 rhyme을 들려준다.

Baby, baby

Look at me

Laugh for me

Little baby

학생 : 교사를 따라 위 rhyme을 반복훈련한다.

교사 : /b/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물어본다.

학생 : boy, button, big, baby...

교사 : 위 단어들의 /b/음을 다시 환기시킨다.

제 2단계의 지도

제 2단계의 발음지도는 제 1단계를 기초로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제 1단계를 복습시킨 후 문장속에서 대립이 되는 단어의 /b/발음을 지도하도록 한다. 그 후 /b/음이 들어있는 단어들로 형성된 대화를 중심으로 발음훈련을 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시 단어의 강세나 리듬, 억양 등 초분절 특성을 강조하면 된다. /b/음이 대립을 이루는 문장과 /b/음이 내포된 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립문장

There are (pears/bears) in the garden.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ath/bath) is?

She threw away her old (pills/bills).

대 화

Barbara : Hi, Bob !

Bob : Hi, Barbara. You seem very happy.

Barbara : (pause) Well... You know, today's my birthday.

Bob : Oh, right. February 7th. Your birthady !

Hayppy birthday, Barbara !

Barbara : Thanks, Bob. Look at this bracelet that Robin gave me. Isn't it beautiful?

Bob : Oh, it is. That's a beautiful blouse, too. You look good in blue.

IV. 결 론

앞에서 영어의 발음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과 실제의 두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영어음운론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서 음운론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원리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영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과거 우리나라 영어교육현장에서 시도된 대조분석 이론과 오류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발음지도의 새로운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영어음운론의 최근 흐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발음에 대한 지도는 자음과 모음의 올바른 발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분절음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음절과 음보, 그리고 단어 등의 초분절 단위와 강세와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 요소들에 기반을 두 발음교육이 되어야 한다. 단어속의 최소대립을 보이는 음만이 아니라 문장속에서 최소대립을 이루는 음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전체 대화속에서 문제된 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철자와 발음을 동시에 습득하는 훈련을 하고, rhyme과 노래 등을 들려주며 발음을 주로 지도하도록 하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화 중심으로 발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요컨대 발음지도는 학습자의 발음만을 단순히 지도하기 위한 훈련이 되기 보다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도록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 위주로, 단어보다는 문장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J.M. & C.J. Ewen. 1987.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Bloomfield, L. 1933. *Language*. London : George & Unwi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 MIT Press.
- Chomsky, N. &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 Clements, G.N. & S.J. Keyser. 1983. *CV Phonology*. Cambridge : MIT Press.
- Fowler, C.A. et al. 1993. "The Structure of English Syllables and Polysyllabl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 : 115-140.
- Fries, C.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iegerich, H.J. 1992. *English Phon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Gleason, H.A. Jr. 1961.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 Winston.
- Hayes, B. 1981. *A Metrical Theory of Stress Rules*. MIT Ph.D. Dissert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 . 1982. "Extrametricity and English Stress." *Linguistic Inquiry* 13 : 227-276.
- . 1984. "The Phonology of Rhythm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3 : 227-276.
- . 1991. *Metrical Stress Theory Principles and Case Studies*. UCLA ms.
- Hockett, C.F. 1942. "A System of Descriptive Phonology." *Language* 18 : 3-21.
- Hogg, H. & C.B. McCully. 1987. *Metrical Phonology : A Courseboo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tô, J.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 1989. "A Prosodic Theory of Epenthesis." *NLLT* 7 : 217-260.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MIT Ph. D. Dissertation.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iparsky, P. 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 421-441.
- Lado, B.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vin, J. 1985. *A Theory of Syllabicity*. Ph. D. dissertation. MIT : Cambridge.
- Lieberman, M. & A.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 249-336.
- Littlewood, W. 1983.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J. 1979. "On Stress and Syllabification." *Linguistic Inquiry* 10 : 443-466.
- Nespor, N. &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Holland : Foris Publications.
- Pike, K.L. 1947. *Phonemics*. Ann Arbor : Univ. of Michigan Publication
- Prator, C. H. Jr & B. W.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Quirk, R.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 Steriade, D. 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Ph. D. Dissertation. MIT : Cambridge.
- Trammel, R. T. 1993. "English Ambisyllabic Consonants and Half-Closed Syllables Teaching." *Language Learning* 43 : 2 : 195-238.
- Trubetzkoy, N. 1939. *Principles of Phonology*. Translated by Christiane A.M. Baltaxe. Berkeley & LA : Univ. of California Press.
- Vergnaud, J.R. & M. Halle. 1978. "Metrical Structure in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1988. *Phonology and Morphology* 3 : 11-70.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 . 1980. "Three Dimensional Phonology." *Journal of Linguistics* 1: 83-105.
- 金鍾勳. 1988. 英語의 音節과 그 構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89. "영어의 음절구조와 그 조건." *영어영문학과* 제35권 제3호. 한국영어영문학회, 589-608.
- . 1990. 音節音韻論. 서울: 한신문화사
- . 1992. "英語單語의 音節化 原理에 관한 연구." *英語英文學* 5권. 한국영어영문학회 제주 지회, 287-304.
- 鄭 國. 1988. "음운론의 재이론과 외국어 발음교육." *영어영문학* 제34권 제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363-395.

Summary

Phonological Theories and the Teaching of English Pronunciation

Chong-Hoon Kim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ays to apply some phonological theories effectively to the teaching of English pronunciation, and to devise more desirable teaching techniques to teach English pronunciation in order to develop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nglish learners in the Korean English classroom.

In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the teacher should put more emphasis on suprasegmental units or factors than on segmental phonemes, making the students recognize and drill the syllable, foot, phonological word,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which have much influence on conveying the meanings of sentences effectively.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nglish learners, it is advisable to teach sounds and spellings simultaneously, making them repeat many nursery rhymes, songs and poems in the English classroom of Korean middle schoo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actice dialogs which include sounds in question in a meaningful context in the highschool English classroom, where the focus is on the meanings the sounds carry rather than on the sounds themselves.

In conclusion, it can be a good way to use the rhyme-based and dialog-directed technique presented in this study, in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